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제32권 6호(나해) 2012.1.1

[묵상]



한국의 성지 '당고개'(최양업 신부의 어머니 이성례 마리아 상)<서울대교구, 서소문밖 네거리 소재>

새해의 기도

새해엔 행복하게 하소서.
내가 행복해 할 수 있는 일로
나의 시간을 채우게 하소서.
누가 나에게 행복을 선물한다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소서.

새해엔 행복을 빌게 하소서.
남이 행복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나의 시간을 비우게 하소서.
누군가의 행복을 위한 나의 나눔이
나를 진실로 행복하게 만드는
나를 위한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내가 진정 행복하게 하소서.

새해엔 하느님을 품고 살게 하소서.
하느님께서 늘 함께 계심을 느끼며
언제나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느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그래서 하느님으로 인해 행복한
새로운 한해가 되게 하소서.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민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들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오후 2:00
	레지오 마리아에 예비자 교리반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M.E. Sharing(3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 (작수달 4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 울뜨레아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2011년 12월31일(토요일 밤 11시30분)

송년미사 겸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특전미사

한해의 끝자락에 이르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삶을 위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용서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오늘 미사는 내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특전미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 **입당송** : 하례하나이다, 거룩하신 어머니. 당신은 하늘과 땅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임금님을 낳으셨나이다.

▶ **송년노래**(Auld Lang Syne - 개사)

- 1) 시작이요 마침이신 우리 주 하느님 사랑으로 함께 하심 감사하나이다. 어리석은 마음 모아 당신께 드리니 이 한해의 모든 잘못 용서해주소서.
- 2) 우리들의 구원이신 하느님 아버지 어둠으로 덮인 천지 빛으로 비추사 다만 하나 희망으로 이 땅에 오시어 괴로웠던 우리 역사 밝혀주소서.
- 3) 진리의해 한마음을 바치신 예수님 당신 향해 가는 우리 돌보아주소서. 참된 생명 우리 주여 당신을 따르리 이 땅위에서 역사를 창조하옵시다.

▶ **제1독서** : 민수기 6,22-27

▶ **화답송**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이다.◎

▶ **제2독서** : 갈라티아서 4,4-7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번 여러 가지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 **복음** : 루카 2,16-21

▶ **2011년 백삼위 추억의 Review**

▶ **봉헌 성가** : 전례성가 256, 197

▶ **영성체송** :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든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 **성체성가** : 전례성가 283, 279

▶ **파견성가** : 전례성가 238

2012년 1월1일(주일 오전 9시30분, 오전11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새해 첫날인 오늘은 성모 마리아께서 하느님을 낳으심을 경축하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천주의 성모'라는 명칭은 주님의 신성과 인성을 강조하고자 성모 마리아께 붙여진 칭호로서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1970년부터 해마다 1월 1일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경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을 '세계 평화의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생명과 평화를 주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을 함께 기뻐하며, 우리도 성모님을 본받아 세상 모든 곳에 주님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입당송** : 하례하나이다, 거룩하신 어머니. 당신은 하늘과 땅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임금님을 낳으셨나이다.

▶ **입당성가** : 전례성가 319

▶ **제1독서** : 민수기 6,22-27

▶ **화답송**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이다.◎

▶ **제2독서** : 갈라티아서 4,4-7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번 여러 가지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 **복음** : 루카 2,16-21

▶ **봉헌 성가** : 전례성가 270

▶ **영성체송** :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든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 **성체성가** : 전례성가 281

▶ **파견성가** : 전례성가 148

되돌아봄과 바라봄

항상 해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펜스레 가슴이 떨리고 설렘과 더불어 어떤 희망이 자리 잡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아쉽고 못다 이룬 꿈이 남아 있는 지난해를 보내고 맞이하는 첫날이기에,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되돌아봄과 바라봄, 이 두 가지가 얹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를 보내고 2012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가슴에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내 가슴 속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슬픔이 많은 사람보다 아쉬움이 많은 사람의 삶이 더 힘들고 괴롭다.” 진정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아쉬움이란 무엇입니까?

사실 지나고 나서 우리가 늘 후회하고 아쉬움이 남는 것들은 특별한 실패나 부족함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물질이나 능력이나 지위나 명예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은 그리 오래가지 않고 크게 마음 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고, 겸손하지 못한 데서 생긴 후회나 아쉬움은 오래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늘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가슴을 치게 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목자들이 천사의 기쁜 소식을 들은 후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합니다. 한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깁니다. 사실 마리아는 누가 그 목자들을 불렀

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은 그 아기가 누구인지 알고는 있는지 등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을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하고 묵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중심으로 일어난 모든 신비를 마음속 깊이 새겨 간직하면서 하느님의 길을 발견하려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미약한 인간으로서, 하느님의 심오한 계획을 모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하느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관찰하고 그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체험은 그 나름대로 가치를 지닙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경험일지라도 우리를 좀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도 새롭게 사랑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역시 성모님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마음 속에 곰곰이 간직하고 묵상한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한 해에 복을 주셨고 올 한 해에도 축복을 리라는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고준석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수

~ HAPPY New Year ~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주	송년 미사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학생미사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낮미사
해설자	남성철 베네딕도	신덕래 테레사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김교복 레오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강혜원 아네스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3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은지 릴리안	김숙희 유소사세실리아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갈유현 미카엘	김교복 레오	송현식 바오로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서용숙 에스텔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1반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독에 성장하는 백삼위"

~ HAPPY New Year ~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하루하루는, 기록하신 어머니"

2012년 새해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한 해의 첫날을 성모님의 축일로 맞이합니다. 성모님께서는 평생을 하느님 말씀에 순명하며 사셨습니다. 우리도 성모님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새기며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느님 뜻에 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 매일미사 중에서 -

1월

- ◆ 성시간 : 5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 진행 : 토런스 남구역
- ◆ 병자봉성체 : 6일(금) 오전 10시
- ◆ 성모신심미사 : 7일(토) 오전 8시30분

- ◆ 오늘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은 없습니다. 다음주 '이주민 주간'을 맞아 '해외파견 한국선교사' 후원을 위한 2차 헌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 오늘 대축일 미사 후 새해 떡만두국 나누기 친교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시30분 / 11시 미사후)
임진년 새해를 맞아 본당 사목회 청소년분과위원회(분과장 : 남성철 베네딕도)에서 배론청년회와 함께 떡만두국을 준비하여 전교우들에게 대접합니다. 봉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맛있게 떡국을 나누시다. (토요일 자정 송년미사후에는 성모회가 마련한 호박죽이 준비되어있습니다.)
- ◆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설립
뜻있는 본당 교우가 장학기금을 내놓으셨습니다. 이에따라 2012년 올해부터 백삼위 장학회를 설립했습니다.
 - 수혜대상 : 하이스쿨 12학년, 대학재학생(1~3학년)
 - 자격 : 본당 등록신자로 교회봉사와 학교성적 우수한 학생

- 수혜인원 : 매년 8~10명
- 신청기간 : 2012년 4월1일~2012년 5월15일
- 장학금 지불일 : 2012년 8월1일 이후
- 신청서 : 2012년 2월1일부터 사무실에 비치
- 문의 : 본당 신부님
- ◆ 새해(2012년/임진년/나해) 본당 달력 찾아가세요.
 - 한국가톨릭교회의 역사와 문화재 성당을 주제로 한 2012년 본당 달력을 교우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 전례력, 독서, 복음, 축일, 절기 등을 담은 새해 달력은 신심생활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가정당 2부씩)
 - 달력제작에 도움을 주신 광고후원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명섭 미카엘(명섭)치과, 플라자 약국, 모든 집수리전문, 이코노 자동차종합정비, 익재한의원, A-One Auto Center, Steeline, 수호천사보험>
- ◆ 본당 성령기도회 모임 매주 목요일로 환원
 - 일시 : 매주 목요일 8시
 - 문의 : 성령기도회장 강혜원 아네스 ☎(310)780-0369
- ◆ 예비자 수요 교리반 개강 안내
 - 개강 : 1월11일(수) 오후 8시
- ◆ 백삼위 성모회표김치 설맞이 과격세일!!!
 - 판매일시 : 1월14/15일(토요특전, 주일미사)
 - 품목 : 김치, 새우젓, 된장
 - 판매에 필요한 빈병(작고/큰 김치병 등)을 수집합니다.
 - 문의 : 성모회장 최길숙 요세파나 ☎(310)738-4788
- ◆ 백삼위 서예반 '서경회' 회원모집
서예에 관심있는 교우들을 초대합니다.
 - 모집대상 : 한글반, 예서반(한문) 사군자반
 - 지도 : 박태홍(일호 : 한국예총 미주서예가협회 회장)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월1일(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 전신자와 떡만두국나눔
- 1월8일(주일) : 토런스 서1반(육개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국세찬	금영도	김선영	김성현	김 용
	김일선	김재영	김철민	김충섭	남성철	문충한
	박광자	박동수	박선희	박정자	박현주	서성용
	송근섭	송호창	신순철	오영섭	오태환	우영균
	유선식	윤석봉	윤 철	윤화경	이경태	이근태
	이석제	이영석	이용식	이용무	전동훈	정충로
	조혜정	지경수	최길주	최원석	추서희	한금순
	현석주	홍석인				
						합계 : \$9,555
미사헌금 : \$4,290	구유예물 : \$2,964					
성전헌금	강순복	국세찬	금영도	김 용	김일선	김철민
	김충섭	남성철	문충한	박광자	박선희	박현주
	서성용	송호창	신순철	오명섭	오영섭	우영균
	유선식	윤화경	이경태	이근태	이석제	이용식
	이용무	전동훈	정충로	조혜정	지경수	최길주
	한금순	홍석인				
						합계 : \$6,685
	한남체인 도네이션 \$370					
감사헌금 : 이용식	김선영	이병우	익명			

공지사항

◆ 주일학교/한국학교 휴강 안내

- 오늘 주일(1일) 천주의 성모마리아대축일 : 수업 없습니다.
(9시30분 미사는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 1월15일(주일) : 마틴루터킹Jr. 기념일 연휴 수업 없습니다.
(영어 학생미사 있음)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 교장 ☎(213)258-8665
김본경 올리아 한국학교 교장 ☎(310)713-2669

◆ '십자가의 길' 기도문 공용 비치

- 지향에 따라 주제가 다른 '십자가의 길' 기도문을 공용(성당 비품)으로 비치하여 두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분당설립 30주년을 맞아 작년에 새로 건립한 '야외 십자가의 길'에서 기도하실 때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 비치장소 : 성모상앞 돌의자 사물장, 사무실
- 주제 : ♡성경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 ♡김수환(목상)/장익(역음) 십자가의 길 ♡청소년이 바치는 십자가의 길 ♡베네딕도 16세 교황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 성물이 많이 준비되어있습니다.

- 새해를 맞아 성물부에 성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친지들에게 선물할 아이템이 많으니 한번쯤 둘러주세요. 축성받은 성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 문의 : 김춘자 막달레나 ☎(310)539-3377

남가주 소식

◆ 예수회 성경대학 2학기과정 안내

- 일시 : 2012년 1월 6,7,8일 오후6시30분~9시30분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본당
- 강사 : 송봉모 토마스 신부(예수회)
- 수강료 : 1일 \$20, 3일 \$50
- 문의 : ☎(213)249-3603 교영희 데레사

◆ 성 아그네스 성당내 이냐시오 카페 오픈

- 커피 감정사인 LA 아그네스 성당 최대제 신부가 기도와 기술을 통합시킨 커피를 만들어 냅니다. 아그네스 성당에 오시면 핸드드립 커피를 드실 수 있고 로스팅 된 원두커피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323)731-4433

◆ 이냐시오 성인 영신수련 4박5일 침묵피정

- 일시 : 2012년 1월11일(수)~15일(주일)
- 장소 : Marywood 피정센터(오렌지카운티)
- 피정지도 : 이인주 신부(예수회)
- 참가비 : \$380(독방), 선착순 20명
- 주최 : 미서부지역CLC(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
- 문의 : 최아우렐리아 ☎(562)233-7163

소공동체 1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박혜경 테나타 (310)808-5005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원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1/13(금)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인수 바오로 320-3697 12/10(토) 오후 6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녜스 989-0366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14(토)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윤화경 바오로 316-7819 1/14(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권영옥 루시아 720-2876 1/9(월)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오창애 안나 974-2857 1/20(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안혜진 세레나 634-6923 1/12(목) 오전 10시30분 성당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이재용 안드레아 994-6782 1/14(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김병태 요셉 999-1448 1/13(금)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최벨라맷타 213-718-0310 1/14(토) 오후 7시 성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944-2737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송종두 요한 544-1267 1/13(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배재일 미카엘 544-9460 1/6(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1/13(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1/10(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	--

젊은이들을 위한 정의와 평화의 교육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선물인 새해를 맞아, 모든이에게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며 정의와 평화가 확고히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하여야 하겠습니까? “과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시편 130



(129),6) 더 굳건한 희망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2012년을 이러한 확신에 찬 믿음으로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젊은이들을 생각하며 제45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 “젊은이들을 위한 정의와 평화의 교육”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젊은이들과 그들의 관심사에 동참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는 것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세우기 위한 사회 전체의 첫째 의무입니다. 교회는 젊은이들이 진리를 찾고 공동선을 수호하며,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일들”(이사 42,9; 48,6)을 바라보도록 격려합니다.

평화와 정의에 대한 참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첫 교육자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정의와 평화를 익히는 첫 학교입니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하면서 그 삶의 여정에 더 깊이 동참하고 연륜으로 얻은 경험과 확신을 전해 줄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모범적인 삶을 통하여, 자녀들이 진정한 정의와 평화의 유일한 원천이신 하느님께만 희망을 두도록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모든 가정과 교육 기관들이 그들의 교육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도록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젊은이들에게 모든 이의 선의를 위하여 진정으로 봉사하는 투명한 정치상을 보여 주십시오. 젊은이들도 정의와 평화 교육을 비롯한 자신의 교육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간은 오로지 하느님과 맺는 관계 안에서만 인간 자유의 의미도 이해하게 됩니다. 인간이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과제입니다. 참된 자유는 아무런 제약도 없는 방종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하느님을 떠나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자유를 행사하기 위하여 인간은 자신에 대한 진리와 선과 악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 하고, 양심의 법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유는 자연 도덕률과 관련되어 있으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존의 기초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자유의 올바른 사용은 정의와 평화 증진의 핵심입니다. 자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존재와 생활 방식이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존중을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상호 신뢰, 용서를 할 수 있는 힘, 주고 받는 사랑, 연민, 희생을 할 각오가 생겨납니다. 이 요소들이 없다면, 평화와 정의는 아무런 내용도 없는 그저 빈말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평화는 거저 받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떠맡아야 할 과업입니다. 진정한 평화의 일꾼이 되려면, 우리는 스스로 교육하여, 연민, 연대, 협동, 형제애, 능동적인 공동체 활동을 배워야 합니다. 평화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추구하여야 하는 목표입니다. 미래 세대가 평화의 거래가 되고 평화의 일꾼이 되도록 교육하여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저는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사회를 위한 소중한 선물입니다. 어려움에 부딪혀 좌절하지 마십시오. 흔히 가장 쉬운 길로 보이는 그릇된 해결책에 기대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투신하십시오. 힘든 일과 희생을 직시하고, 성실과 인내, 겸손과 헌신을 요구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젊음을 믿으십시오!**

◆교황 베네딕토 16세